



아름다운 나눔 '북구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루 나눔행사가 18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아름다운 가게 광주역점에서 열렸다. 이날 기부 물품은 북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수집한 의류 및 생활품 7000여점으로 진행됐다. /진진기자 jeans@kwangju.co.kr

동합평산단 시행사 선정 ... 역대 돈 받은 기자 구속

목포지청, 공무원 유착 조사
조성 중인 동합평산단 조성 공사의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돕겠다며 업자로부터 역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실제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에 주목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공무원과 유착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지방흡입시술 과실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벌금 1500만원

광주지법 선고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천수 판사는 18일 지방흡입시술 중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서구 상무지구 한성형외과 의사 A(48)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숨진 결과가 심각하

은밀하게...주택가 파고드는 성매매

전단지 뿌리고 인터넷 카페 회원제로 운영 알선

광주경찰, 오피스텔·모텔 업주 24명 등 59명 입건

성매매업소 영업이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경찰 단속을 피해 오피스텔과 일반 주택 등으로 눈길을 한 성매매업소가 독버섯처럼 파고드는가 하면, 키스방·대발방·허브삼 등 변태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은밀한 개별 성매매도 확산하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과 경찰의 단속에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오피스텔을 빌려 유사 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가 하면 주택가에 음란전단을 뿌리고 연락이 오는 남성과

개별적으로 만나 성매매를 한 여성 등 불법 신·변종업소 업주 등 24명과 성매매 여성 30명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34)씨 등 2명은 지난 2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해 인터넷 카페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7만~13만 원을 받고 불법 성매매를 시킨 혐의다.
김씨 등은 인터넷 카페를 만든 뒤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전화로 연락이 오는 남성들에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을 각각 임대, 세입자로 눈가림을 하는가 하면,

동종 업계 업주들을 통해 믿음직한 손님인지를 파악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상무지구 유흥가에 출장마사지 명함형 음란전단을 배포했던 남성이 적발됐고 초등학교 주변 빌라에서 14개의 방을 빌려 대발방을 운영하거나 오피스텔 5개를 임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여종업원도 경찰에 검거된 바 있다.
단속을 피해 은밀한 영업을 하는 탓에 손님유인 전략도 교묘하다. 박모(여·37)씨의 경우 지난달 27일 밤 11시2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음란전단을 보고 연락한 남성과 1대 1로 만나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박씨는 음란전단 제작·배포 업자와 연계, 유흥가 밀집 지역을 돌며 불법 음란전단을 배포토록 한 뒤 전단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모텔로

불러들여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순천경찰은 이날 가출 여고생을 이용해 성매매를 시킨 이모(21)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순천시 조례동 한 모텔에서 여고생 A(18)양을 동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남성 22명에게 15만 원씩 받는 등 100회에 걸쳐 1200만 원 상당의 화대를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일반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으로 파고드는 등 더욱 음성적인 형태로 변태돼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참 뻔뻔한 감형 호소

80억원대 공금을 횡령한 여주시청 전 8급 기능직 공무원 부부가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20차례나 제출하고 피해금액 반환 계획을 제시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그러나 반환 계획에 대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아 법조계 안팎에서 '피해 복구 없는 반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갑다.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피해액 복구 대책 없어
반환 계획은 현실성 부족
법조계도 따까운 시선
을 열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무원 연금과 여수시가 가입류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한 금액 등 34억원을 반환할 수 있다며 감형을 요청했다.
김씨 부부는 1심 형량에 충격을 받았는지 항소 이후에만 아내와 합

80억 공금 횡령 전 여주시 공무원 반성문 20차례 쓰고 '형 깎아달라'

계 10차례씩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1년을, 횡령에 가담한 김씨의 아내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공무원 연금을 담보로 이미 대출을 받아 시가 회수할 연금이 없는데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다 해도 드러난 소유 재산 역시 거의 없어 실제 횡령액 반환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수시는 보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가 진정성 있는 반

성으로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광주고법의 한 관계자는 "형사 피고인들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그보다는 피해를 어느 정도 복구해 최소화하느냐가 감형 사유가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서 근무하면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방법으로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윤현성기자 chadol@kwangju.co.kr

송대관 부부 사기혐의 檢 송치

서울 용산경찰은 수역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송대관씨 부부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 A씨는 고소장에서 "송씨 부부를 믿고 총남의 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7000만원을 투자했으나 2~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개발사업 인허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10대에 불장난 훈계하다 몸싸움

○~50대 남성이 10대 학생의 불장난을 나무랐다가 되레 주차 봉을 들고 대들자 나무막대기로 때려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신모(51)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E병원 주차장에서 불장난을 하던 최모(15·광주 모중학교 3년)군에게 나무 막대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했다는 것.
○~경찰에서 신씨는 최군이 불장난 하는 것을 보고 말렸는데, 최군이 오히려 플라스틱 주차 봉을 들고 달려들어 순간 위협을 느껴 바닥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주위 휘둘렀다고 진술.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KT 직원, 노동탄압 항의 유서 남기고 자살

전남본부 광양지사 50대 "15년 탄압 이젠 끝내야"

KT 전남본부 광양지사 직원이 사측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께 순천시 연향동 팔마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KT 광양지사 직원 김모(53)씨가 자신의 차 안 운전석에

서 숨진 채 발견됐다.
차량 안에서는 연탄불을 피운 흔적과 유서가 발견됐다. 지난달 시행된 단체교섭 찬반투표의 찬반투표 용지를 찢은 사진 위에 자필로 쓴 유서에 회사 쪽의 노조 탄압에 대한 의혹이 담겨 있다.
김씨는 유서에 'KT노조 단체교섭

찬·반 투표 후 점표가 두려워서 항상 사진으로 남긴다. 개별 면담시 반대 찍은 사람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갈 수 있으니, 알아서 찍으라 엄포놈(점표하면 다 나온다). 2013년도 항상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고 적었다.
김씨는 또 '××팀장은 직원들 모인 자리에서 똑바로 해라 하면서 업포를 놓는다. 워든 감압적이다. 반대

표를 찍은 것으로 판명된 직원은 어김없이 불려가 곤욕을 치르고 나온다. 15년간의 사측으로부터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고 썼다.
경찰은 김씨가 "빛이 있었다"는 동료의 진술 등을 토대로 채무 관계를 고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노동 탄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별도로 조사를 할 방침이다.
KT 전남본부 관계자는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족들이 기사화되는 것 자체를 꺼려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1 시공 전 / 2 단열베이스시트 / 3 트라이슈머 / 4 시공 후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
2중단열 방수 천정 절연방식 내구성 탁월
절연방식 시공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태양열차단 냉기차단
여름철 실내온도 3~5°C 겨울철 실내온도 3~5°C
전기로 30~40% 난방비 15~20%
냉방비 절감 난방비 절감

냉·난방문제!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사 전속모델 탈렌트 이영후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오천경매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정중히 모십니다.

매주 2시간, 3개월 스터디 합니다.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실제 낙찰 사례 교육이고 1:1 개인 교육합니다.

교육비는 1,100만원이고
부자로 살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려 드립니다.

단, 투자금이 1억이상 가진분에만 합니다.

주, 오천경매 대표이사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